

사드 보복이 보여주는 중국의 허망한 G2 리더십



▲ /삽화=양만금 화백

[전광우·손현덕의 통쾌한 경제-1] 겸즉진(謙則進·겸손하면 전진한다). 필자가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재직 중 첫 중국 공식 출장을 간 30년 전, 정부 관리의 안내로 들렀던 베이징의 국자감에서 방문 기념으로 받은 액자에 담긴 글입니다. 당시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걸모습은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초라하고 누추했지만, 어려웠던 그 시절 오히려 소박하고 예의 바른 중국 지도자들의 언행은 대국의 품모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사반세기의 놀라운 외형적 성장을 이룬 중국의 오늘날, 개혁개방 초기의 진지하고 겸허한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된 건 참으로 유감입니다.

최근 중국의 치졸하고 오만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은 우방국가에 대한 외교적 무례를 넘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날로 커진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자위적 방어 수단인데도 이를 포기하라고 겁박하는 것은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는 국제적 논평이 무리가 아니지요. 정작 사드 배치의 주체국인 미국에 대해선 보복 얘기조차 꺼내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G2(Group of Two)는 미국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등이 21세기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이끌 두 나라로 미국과 중국을 지목하면서 10년 전 처음 사용한 후 보편화된 표현입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새로운 글로벌 체제로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지요. 사실상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2위로 올라서면서 예측은 들어맞은 셈입니다.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미국 GDP는 18조6000억 달러로 100년 이상 세계 1위를 견지하고 있고 중국은 11조4000억달러로 3위인 일본의 두 배

를 넘어섰습니다.

본래 G2는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세계경제 공동 번영과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책임 있는 리더십이 본질이란 얘기죠. G2는 경제적 비중에 걸맞은 성숙하고 품격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품격, 즉 국격(國格)은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와 규범을 지키고 타국의 입장을 존중할 때 높아진다는 건 상식입니다.

경제지표보다 더 쉽게 선·후진국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미안과 감사'라는 말을 자주하면 선진국, 그렇지 않으면 후진국이라고 보면 틀림없지요. 세계적인 정치학계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Trust)라는 사회적 자본'이 국가 발전의 핵심 가치라고 갈파한 바 있는데 국제관계에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술한 도발과 불법 테러에 실효성 있는 대처는 피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한국의 자위권행사를 겁박한다면 과연 국제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력은 국격이 갖춰져야 지속 가능하고, 진짜 대국의 조건은 이웃 나라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기본입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간 경제협력과 선린관계가 한층 발전하려면 더더욱 그렇고요. 중국의 인식과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G2 리더십의 길은 멀고, 미국 주도의 실질적 G1 시대는 오래갈지 모릅니다. 앞서 언급한 액자의 말미에 "오만하면 퇴보한다"는 부제가 눈에 띄는데, 언제 어디서나 통할 진리입니다. 물론 남 탓 못지않게 우리가 홀대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또한 잊어선 안 될 일이지요.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